

청소년의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와
일상 생활 활동 경험과의 관계*
- 한국과 미국 고등학교 3학년생의 비교 -

Cultural Differences in Levels of Adolescent Depression in Relation to
Experience of Daily Life Activities: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American High School Seniors

이 미 리**
Lee, Mee Ry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daily experiences of schoolwork and leisure activities explained cultural differences in levels of adolescent depression. A combined sample of 58 high school seniors in Korea and 62 high school seniors in the United States reported time use patterns and affect states in daily activities and levels of depression. The time use pattern in daily independent study during class hours and in active leisure activities significantly explained cultural differences in levels of depression. Affect states in all schoolwork activities and passive leisure activities also significantly explained cultural differences in levels of depres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Korean adolescents' experience of 'exam hell', particularly the lack of active leisure activities and more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of daily activities are partly responsible for their higher depression relative to American counterparts.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울증의 발병률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발

달하면서 증가하며(Petersen, Compas, Brooks-Gunn, Stemmler, Ey, & Grant, 1993; Rutter, 1991), 청소년기에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성인기에 우울증을 경험 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Harrington,

* 이 연구는 1995년도 제61차 the Stud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SRCD) in Indianapolis에서 발표된 포스터 보고서의 확장 연구임.

** 동덕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Fudge, Rutter, Pickles, & Hill, 1990; Kandel & Davies, 1982). 또한, 청소년기 우울증은 이 시기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부적응 행동들, 예를 들어 가족과 친구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행동, 학업 성적 저하,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대처 전략, 섭식 장애, 자살 시도 등과 관련성을 보이는 주요 변인이라 보고되고 있다(Hops, Lewinsohn, Andrews, & Roberts, 1990; Kandel, Raveis, & Davies, 1991).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 최근 우울증에 대한 연구들이 청소년기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더구나 청소년기 우울증은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과 같이 매우 경쟁적인 대학 입시를 치루는 나라들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Cho, 1993; Rohlen, 1983; Schooland, 1990).

우리나라나 일본의 청소년과 미국의 청소년의 우울증 수준을 비교하는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 보다 우울증 수준이 높다고 일관성 있게 보고 한다(Baron & Matsuyama, 1987; Diener, Suh, Smith, & Shao, 1994; Fugita & Crittenden, 1990; Hymes & Akiyama, 1990; Lee, 1994; Sung, Lubin, & Yi, 1992).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인류학자나 비교문화연구자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청소년이 경험하는 입시지옥, 즉 경쟁적인 대학입시로 인한 시험준비로만 일관된 지나친 학업위주의 일상생활경험이 이들의 정신적인 부적응 증상들에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Cho, 1993; Rohlen, 1983; Schooland, 1990; Sung, Lubin, & Yi, 1992; Tseng & Hsu, 1980).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생활경험과(daily life experiences)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일상생활에서 일과 여가에 보내는 시간의 양이나 심리적 경험은 우울증과 의미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이미리, 1995;

Larson, Raffaelli, Richards, Ham, & Jewell, 1990; Merrick, 1992). 따라서 청소년기의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는 일상생활경험에 있어서의 차이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일과 여가 시간과의 균형 측면에서 우리나라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경험은 매우 대조적인 유형을 보인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하루 깨어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학교 공부에 보내는 반면(Lee, 1994; Won, 1989), 미국의 청소년들은 여가 활동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Csikszentimihalyi & Larson, 1984; Lee, 1994). 일상생활경험에 있어서 이와 같이 두 나라 간에 대조적인 유형은 일상생활경험이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를 설명하는지 검증해 볼 수 있는 자연스런 실험 조건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과 미국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두 집단간의 우울증 수준의 차이가 일상생활경험에 있어서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 봄으로써 청소년기 우울증 수준과 사회문화적 요인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 3 청소년과 같은 학년의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와 일상생활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고 3 청소년과 미국의 청소년은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우리나라 고 3 청소년과 미국의 청소년은 하루중 공부와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사용 유형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우리나라 고 3 청소년과 미국의 청소년은 하루중 공부와 여가활동중에 경험하는 정

서적 상태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하루중 공부와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사용 유형은 우리나라 고 3 청소년과 미국의 청소년간의 우울증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가?

연구문제 5: 하루중 공부와 여가활동중에 경험하는 정서적 상태는 우리나라 고 3 청소년과 미국의 청소년간의 우울증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일상생활경험과 우울증 수준과의 관계

일상생활경험(daily life experiences)은 객관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경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객관적인 경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하루시간을 하루에 경험하는 여러가지 활동들을 (예를들어, 일, 여가) 위해 어떻게 할당하고 있는가로 측정될 수 있으며 이를 시간사용 유형(time use patterns)이라 부르고 있다(Csikszentmihalyi & Larson, 1984; deVries, 1992; Larson, 1989). 주관적 경험은 이러한 활동을 하는동안 어떠한 심리적 경험을 하는지로 측정된다(Csikszentmihalyi & Larson, 1984; deVries, 1992; Larson, 1989).

청소년의 일상생활경험과 우울증 수준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울증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시간사용 유형이나 심리적 경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Larson과 그의 동료들은(Larson, Raffaelli, Richards, Ham, & Jewell, 1990) 미국 5학년에서 9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경험표집방법을(Experience Sampling Method; ESM, Larson, 1989) 사용하여 일상생활경험을 측정하였으며, CDI로 우울

증 수준을 측정하여 두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시간사용 유형은 남학생의 경우 우울증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하루중 운동하는 시간이 적었으며, 주관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남,녀학생 모두 우울증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모든 하루 활동을(예, 공부, 아르바이트, 여가활동) 통해 부정적인 심리상태를(예를들어 우울한 기분, 주의집중 곤란, 동기수준 낮음)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Merrick은(1992) Larson등의 연구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우울증 수준이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11세-18세 청소년 집단과 우울증 수준이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경험과 우울증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울증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공부나 아르바이트등 생산적인 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적었으며, 일상활동중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우울증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했다. 이미리는(1995) 우리나라 고 3 청소년을 대상으로 Larson등의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일상생활경험과 우울증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하루활동중 적극적 여가활동에(예, 운동, 글쓰기나 그림그리기와 같은 창의적 여가활동, 영화관람이나 운동경기 관람 등과 같은 문화적 여가활동) 보내는 시간이 적을수록 우울증 수준이 높고, 남,녀학생 모두 학교수업이나 개별적인 공부를 하는동안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수록 우울증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우울증 수준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는 일상생활활동의 종류와 관계의 방향에 다소 차이를 보이나 이들 두변인 간에 의미있는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청소년과 미국의 청소년은 하루중 일과 여가 활동들에 대한 시간사용유형에 있어서 대조를 보인다는 것을 Csikszentmihalyi와

Larson(1984)의 연구와 Won(1989)의 연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Csikszentmihalyi와 Larson은 미국 고등학생을(9학년-12학년) 대상으로 경험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일상생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시간 사용 유형에 있어서 하루 깨어 있는 시간의 25%를 학교 공부에 보내고 40%를 여가활동 그리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와 기타 위생에 관련된 활동등에(예, 먹기, 씻기, 정리 정돈, 오가기 등)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Won은 우리나라 중 2와 고 2 학생의 일상생활경험을 조사하였는데, 깨어있는 시간의 50%는 학교 공부, 29%는 여가,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위생에 관련된 활동등에 보낸다고 보고하였다. 두 연구의 대상 연령을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연령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보내고, 일과 여가 시간 간의 균형면에서 공부에 치우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상생활경험의 주관적인 면에 있어서는 미국청소년과 한국청소년 집단 모두 하루 활동 중 여가활동이나 기타 다른 활동에 비해 학교 공부시간중에 가장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활동 중 경험한 심리적 상태에 있어서 이들 두 청소년 집단간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다른 두 청소년 집단을 한데 묶은 표본이(sample)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표본의 사용은 일상생활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2.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의 측정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측정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미국이나 유럽등 서양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우울증은 주로 우울한 정서(dysphoric moods)가 그 대표적인 증세인 반면 중국 일본등 동부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우울증이 주로 신체적인 증세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Chang, 1985; Kim, 1995; Kleinman, 1986; Marsella, Kinzie, & Gordon, 1973; Nikelly, 1988; Sue & Sue, 1987). 이러한 결과들은 한 문화권에서 개발된 우울증 측정도구를 다른 문화권에 적용할 때 타당성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함을 제시해준다.

우울증 수준에 대한 비교문화연구들은 주로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 Kovacs, 1985), Self-Rating Depression Scale(SDS; Zung, 1965),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Radloff, 1977) 등 정서적 증세, 신체적 증세, 대인관계 문제등 다양한 증세들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표준화된 자기보고식 도구를(self-report scale) 사용하며 이러한 측정도구들이 문화적으로 다른 각 비교집단에 있어서 같은 구인(construct)을 측정하는지 평가한다. 예를들어, Kuo(1984)는 성인을 대상으로 CES-D를 사용하여 미국, 필리핀, 일본, 한국인을 포함한 네 집단의 우울증 증세를 측정하여 각 집단별로 요인분석한 결과 네 집단에서 유사한 요인이 추출되고 설명변량의 크기도 48-53%로 유사함을 발견함으로써 우울증의 다양한 증세들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CES-D가 비교문화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도구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Lee(1994)는 CDI를 사용하여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의 우울증을 측정하여 각 집단별로 요인분석한 결과 Kovacs(1985)이 제시한 다섯가지 요인의 우울증 증세가(우울한 정서, 신체적 증세, 자기비하, 대인관

계의 어려움, 비관적사고) 각 집단에서 유사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설명변량의 크기도 44%로 동일하게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CDI, SDS, CES-D와 같이 다양한 우울증 증세들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도구들이 문화적으로 다른 여러 집단들간에 우울증 수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기에 적합함을 제시한다.

위의 도구들을 사용하여 한국, 일본, 미국 청소년들의 우울증 수준을 비교한 연구들은 한국이나 일본의 청소년들이 미국 청소년에 비해 우울증 수준이 높다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Baron & Matsuyama, 1987; Diener, Suh, Smith, & Shao, 1994; Fugita & Crittenden, 1990; Hymes & Akiyama, 1990; Lee, 1994; Sung, Lubin, & Yi, 1992). Baron과 Matsuyama(1987)는 CDI의 원형인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Beck, Ward, Mendelson, Mock, & Frbaugh, 1961)를, Hymes와 Akiyama(1990)는 SDS를 사용하여 미국과 일본 청소년의 우울증 수준을 비교한 결과 일본의 청소년이 미국의 청소년보다 우울증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Fugita와 Crittenden(1990)은 SDS를 사용하여 한국, 필리핀, 타이완, 미국 청소년들의 우울증 수준을 측정한 결과 한국 청소년이 가장 우울증 수준이 높고 미국 청소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ung, Lubin, 그리고 Yi(1992)는 Youth Depression Adjective Check List(Y-DACL; Carey, Lubin, & Brewer, 1992)를 사용하여 한국의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우울증 수준이 두배 이상이나 높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들의 이러한 일관성 있는 결과들은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우울증 측정도구들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우리나라 고 3 청소년 56명과(남자, 여자 각 28명씩) 같은 학년의 미국 청소년 62명(남자, 여자 각 31명씩)으로 총 118명이다. 한국 청소년 집단은 편의 표집에 의해 선정된 부산시 인문계 1개 남자고등학교의 2개반과 1개 여자고등학교 2개 반에서 무선표집하였다. 이들 중 90%의 학생들이 양친가족의(two-parent families) 자녀들이었다. 아버지의 직업 분포는 무직이나 노동자층이 12%, 판매직이나 생산직 종사자가 33%, 경영직이나 전문기술직이 46%, 의사, 교수, 법조계 종사자 등 전문직이 9%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미국 청소년 집단은 1989년에 시작된 Larson(1989)의 청소년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종단적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중 일부로서 이들은 시카고 근교 노동자층이 많이 사는 지역사회(community)에 위치하고 있는 1개 고등학교, 중류층이 많이 사는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1개 고등학교에서 무선 표집하였다(Larson, 1989). 77%의 학생들이 양친가족의 자녀들이었으며, 아버지의 직업 분포는 노동자층이 6%, 생산직 종사자가 53%, 경영직이나 전문기술직이 26%, 의사, 교수, 법조계 종사자 등 전문직이 16%이었다. 각 청소년 집단의 대부분이 대도시의 중류와 노동자 층에서 표집되었다는 점에서 서로 비교 가능한 집단이라 본다.

2. 측정 방법

우울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 Kovacs, 1985), 일상 생활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경험표집방법(Expe-

rience Sampling Method, ESM; Larson, 1989)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1992년 6월 말에서 8월 초까지 2개월간, 같은 학년의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같은해 4월에서 5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각각 수집되었다.

1) 우울증: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 정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Kovacs(1985)에 의해 개발된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는 우울증의 복합적인 증세(우울한 정서, 삶에 대한 의욕 상실, 신체적인 증상, 부정적인 대인관계,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총 27문항에 걸쳐 제시하고 있으며 각 문항은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세 문장으로 구분된 증세를 제시해 놓았다. 예를 들어 문항1의 척도 수준은 (1) 나는 가끔 슬프다 (2) 나는 자주 슬프다 (3) 나는 항상 슬프다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세 문장 중에서 지난 2주간 경험한 증세를 가장 잘 묘사하는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각 문항의 점수 범위는 0점에서 2점이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54점이다(이미리, 1995, p. 28).

높은 점수가 우울증 정도가 심한것을 나타낸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에는 CDI를 번역하고 역번역(back translation)하는 과정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사용하였다. Cronbach Alpha값은 한국 청소년 집단과 미국 청소년 집단 각각 .860, .858이었다.

2) 일상생활경험: 경험표집방법(Experience Sampling Method)

경험표집방법(ESM)은 일정기간 동안(대개 일주일) 하루에 수차례씩 무작위로 소리신호를 주어 소리신호가 들릴때 마다 같은 질문에 반복적으로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일상생활 활동에 있어서 시간사용 유형과 활동 중 정서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하루에 7회씩 일주일간 소리신호를 주고 소리신호가 들릴 때 마다 다음 두가지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첫째,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시간사용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문항의 개방식 질문("소리신호가 주어지기 바로 직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을 하였고, 둘째, 일상생활 활동 중에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중에서 우울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여지는 정서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대조적인 정서 상태를 양극단으로 하는 7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Larson, 1989). 이 척도에서는 "소리신호가 주어지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하였습니까?"의 지시문과 함께 다음 각 네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1) 행복한-불행한, (2) 다른사람에게 화가나는-다른사람에게 우호적인 기분이 드는, (3) 유쾌한-짜증나는, (4) 스트레스 받는-긴장이 풀리고 편안한(이미리, 1995, p. 28). 결과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7일간에 걸쳐 위에 제시된 질문에 49회 반복적으로 답하도록 요구되었다. 정서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한국 청소년 집단에서는 .81, 미국 청소년 집단에서는 .83으로 산출되었다.

일상생활 환경에서의 인간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경험표집방법(Experience Sampling Method: ESM)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었으며(Larson, 1989; deVries, 1992), 이전의 방법에 비해 인간의 행동을 실험실이나 연구실등의 인위적인 환경이 아닌 일상생활 환경에서 경험하는 활동의 종류, 활동에 보내는 시간, 그리고 활동 중에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생태학적인 타당도(ecological validity)가 높은것이 큰 장점이다. 다시말해, 실험실 등의

인위적인 환경에서의 인간의 행동 반응은 실제 행동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경험표집방법은 일상적인 환경에서 측정하므로 측정 환경의 인위성에 의한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을 최대도로 줄여준다. 또한 행동을 현재 일어날 때 그 장소에서 측정하므로 회상에 의한 편견(retrospective bias)이 개입될 가능성도 적다(이미리, 1995, p. 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험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경험을 측정하였다.

한국 청소년 집단의 경우 ESM을 실행하기 위해 아침 6시 부터 밤 12시 30분 까지 세시간 간격으로(시간은 세시간 간격이나 분은 무선으로 정함) 하루에 7회씩 소리신호를 주도록 미리 입력된 전자 손목 시계와 소리 신호가 들릴때마다 자신이 하고 있던 활동과 그 활동중 경험하는 정서 상태를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ESM 질문지책을(휴대하기 간편하게 작은 수첩크기로 만들) 일주일간 지니고 다니면서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고, 미국 청소년의 경우 주중에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 주말에는 아침 8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두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7회씩(주말에는 8회씩) 소리신호를 주도록 고안된 삐삐(beeper)와 ESM 질문지책을 일주일간 지니고 다니면서 반응하였다. 소리신호를 주는 시간의 범위는 사전조사를 통해 깨어있는 시간을 가능한 모두 포함하고 잠자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정하였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

일주일간 주어진 총 소리신호에 대한 반응률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80%(56명이 총 2395회 반응), 미국 청소년의 경우 74%(62명이 총

2114회 반응)이었다. 개인별 일주일간 40여회 반복 측정된 ESM질문지의 시간사용 유형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반응내용은 활동의 종류에 따라 학교공부, 적극적 여가활동, 소극적 여가활동 및 기타활동으로 분류하여¹⁾ 전체활동수에 대한 각 종류별 활동수의 백분율로 시간사용유형(time use patterns)을 나타내었다. 정서상태를 측정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각 활동별로 반복측정된 정서상태 점수의 평균값을 각 개인의 일상활동 중에 경험하는 정서적 상태 점수로 환산하였다.

연구문제 1, 2, 3의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청소년 각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성별로 따로 산출하여 t검증 하였다. 연구문제 4와 5의 분석을 위해서는 우울증 점수를 종속변인, 일상생활경험 점수들을 독립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일상생활 활동 중에서 일과 여가활동의 객관적, 주관적 경험이 우울증 수준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고 일 즉 공부와 여가 활동을 제외한 기타활동은 여러가지 기능의 하위 활동들이 복합되어 있는 유형이므로 동질적인 하나의 유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학교 공부와 여가활동 만을 포함시켰다.

1) 비교문화연구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의 적용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는 비교문화연구에서는 문화(culture)를 여러 요인들로 구성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포장된 변인(packaged variable)” (Segall, 1986)으로 보고, 연구자가 관심있는 어떤 변인에 있어서(이 논문의 예를 들

1) 활동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미리(1995). 고 3 청소년의 일상생활 활동 경험과 우울증 수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6(2), p. 29 참조

면 우울증 수준임)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간에 차이를 보일경우 그 변인과 관계있는 다른변인들을(이 논문에서는 일상생활경험임) 찾아냄으로써 문화라는 설명되지 않은 변인의 구성요인들을 하나씩 발견해나간다는 가정을 한다(Feldman, Rosenthal, Mont-Reynaud, Leung & Lau, 1991; Feldman & Rosenthal, 1991; Poortinga & Van De Vijver, 1987; Segall, 1986). 이러한 기본가정을 가지고 적용되는 위계적 회귀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종속변인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독립변인들의 설명변량을 산출하고 그 의의도를 검증한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종속변인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나는지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 회귀분석의 두번째 단계에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들이 변수가(value) 되는 문화라는 명명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첨가시킨다. 이 단계에서 문화라는 명명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설명변량이 적을수록 첫번째 단계에서 사용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를 성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네 단계로 구성된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첫째 단계에서는(Model 1)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성별이 우울증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 변인이므로(Nolen-Hoeksema & Girgus, 1994), 일상생활경험이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정도를 성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산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단계에서는(Model 2)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시간사용 유형 혹은 정서적 경험을, 셋째 단계에서는(Model 3) 성별과 시간사용 유형 혹은 정서적 경험의 상호작용 변인을(성별×시간사용 유

형, 혹은 성별×정서적 경험) 독립변인으로 첨가시켰다. 셋째 단계에서 상호작용 변인의 효과가 의미있을 경우, 우울증 수준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일상생활 경험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나므로 그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성별에 따라서 따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넷째 단계에서는 우울증 수준에 대한 일상생활경험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명명변인인 문화를(1:한국, 2:미국) 독립변인으로 첨가시켰다. 일상생활활동에 있어서 시간사용 유형과 정서적 상태는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고, 각 활동들에 보낸 시간사용 유형끼리 그리고 정서적 상태점수끼리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므로(Lee, 1994),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피하기 위해 시간사용 유형과 정서적 상태 점수를 따로 사용하여 각 활동의 종류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

각 청소년 집단의 우울증 점수 평균 및 표준 편차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t검정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에 비해 우울증 수준이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나 일본의 청소년이 미국의 청소년보다 우울증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Baron & Matsuyama, 1987; Diener, Suh, Smith, & Shao, 1994; Fugita & Crittenden, 1990; Hymes & Akiyama, 1990; Lee, 1994; Sung, Lubin, & Yi, 1992).

2.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시간사용 유형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

우리나라 고 3 청소년과 같은 학년의 미국 청소년의 일상생활 활동들에 보내는 시간의 유형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하루 일과가 얼마나 학교 공부에 치우쳐 있는지 알 수 있다. <표 2>는 두 청소년 집단의 하루 깨어 있는 시간 중 각 활동에 보내는 시간의 백분율과 집단의 차를 살펴보기 위한 t검정 결과를 나타낸다. 한국 청소년 집단은 미국 청소년 집단에 비교해 볼 때 수업중 선생님 강의를 듣기, 수업중 개별공부하

기, 그리고 방과후 개별공부를 하기 등의 학교 공부에 두배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반면, 소극적, 적극적 여가 활동에는 반도 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활동에 있어서 시간사용 유형의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우리나라 고 3 청소년의 당면과제인 대학입시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청소년 집단은 학기중에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한국 청소년 집단은 학기중에 비해 수업시간 수가 적은 여름방학 중에 본 연구 자료가 수집된점을 감안 해 볼때 학교공부와 여가활동에 보내는 시간에 있어서 두 집단간의 차이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표 1> 한국과 미국 고등학교 3년생 집단의 우울증 수준 차이

	한 국			미 국			t
	사례수	평 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 균	표준편차	
남자	28	15.82	9.55	31	9.35	6.08	3.14**
여자	28	20.42	8.09	31	11.90	7.49	4.20***
전체	56	18.12	9.07	62	10.63	6.89	5.09***

p<.01 *p<.001

<표 2> 한국과 미국 고등학교 3년생 집단간의 하루 활동들에 보내는 시간사용 유형의 차이

활 동	한국(사례수=56)		미국(사례수=62)		t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공 부					
수업중 선생님 강의듣기	19.40	7.54	9.13	6.91	2.99**
수업중 개별공부	6.90	4.48	6.44	6.29	.45
방과후 개별공부	17.21	9.59	3.76	3.82	10.15**
여가활동					
소극적 여가활동	18.45	9.03	38.63	16.88	-7.96***
적극적 여가활동	4.90	4.78	9.89	7.32	-4.32***
기타(e.g. 먹기, 씻기, 휴식하기, 잡일)	33.15	9.55	24.98	9.08	4.74***

p<.01 *p<.001

3. 일상생활활동 중의 정서 상태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고 3 청소년은 미국 청소년에 비해 일상생활활동 중 더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하루평균 정서상태와 각 활동별 정서상태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 검증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있다. <표 3>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미국 청소년에 비해 학교공부와 소극적 여가 활동중에 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 그러나 적극적 여가 활동중에는 정서상태의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3> 한국과 미국 고등학교 3년생 집단간의 하루 활동중 경험하는 정서상태의 차이

정 서 상 태	한국(사례수=56)		미국(사례수=62)		t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하루평균	11.90	2.17	14.68	2.42	-6.49***
공 부					
수업중 선생님 강의듣기	10.64	2.83	13.43	4.10	-4.12***
수업중 개별공부	10.90	3.61	13.82	3.73	-3.83***
방과후 개별공부	11.22	3.22	12.85	4.25	-2.14*
여가활동					
소극적 여가활동	12.52	3.38	15.21	2.86	-4.62***
적극적 여가활동	15.05	4.39	15.19	3.46	-0.17
기타(e.g. 먹기, 씻기, 휴식하기, 잡일)	12.25	2.63	14.85	3.10	-4.84***

*p<.05 ***p<.001

• 높은 점수가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의미한다.(점수범위=0~24)

이상의 연구문제 1, 2, 3의 결과를 요약하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대로 우리나라 청소년은 미국 청소년에 비해 우울증 수준이 높으며 일상생활 경험에 있어서는 학교 공부 중심적이고 더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학교 공부로 일관되고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일상생활 경험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미국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우울증 수준을 설명해주는 요인이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문제 4, 5를 설정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와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시간사용 유형

일상생활활동중 학교와 여가활동에 대한 시간 사용유형이 한국과 미국 청소년간의 우울증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 활동별로 수행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의하면 Model 1에서 우울증 수준에 대한 정의효과를 통제 한 후에도 Model 2에서 모든 학교 공부 활동들과 여가활동들을 위한 시간사용 유형이 우울증 점수의 유의

한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공부중에서도 수업중 개별공부와 여가활동 중에서도 적극적 여가활동에 대한 시간사용 유형을 제외한 다른 활동들에 대한 시간사용 유형 변인들의 beta값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변인들에 (수업중 강의듣기, 방과후 개별공부, 소극적 여가활동) 의한 우울

증 점수의 설명변량의 의미있는 증가는 Model 4에서 첨가될 명명변인인 문화와 공유된 변량에 (shared variance) 의한것이라 해석할수 있겠다. Model 3에서 성과 시간사용 유형과의 상호작용 변인에 의한 우울증 점수의 설명변량은 유의하지 않으므로 Model 2에서의 시간사용 유형의 효과는 성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한국과 미국 고등학교 3년생 집단의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 차이와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시간사용 유형과의 관계평가를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공 부						여 가 활 동			
	수업중 강의듣기		수업중 개별공부		방과후 개별공부		소극적 여가활동		적극적 여가활동	
	R ² 증가	β^1	R ² 증가	β^1	R ² 증가	β^1	R ² 증가	β^1	R ² 증가	β^1
Model 1 성(sex)	.04*	.21*	.04*	.25**	.04*	.21*	.04*	.20*	.04*	.14
Model 2 시간사용유형	.07**	.00	.04*	.23*	.08*	-.10	.05*	.10	.12***	-.27*
Model 3 성×시간사용 유형	.00	-.05	.01	-.02	.00	-.09	.02	-.10	.00	.08
Model 4 문화(culture)	.11***	-.43***	.18***	-.42***	.10***	-.49***	.13***	-.48***	.11***	-.33***
전체 R ²	.23***		.26***		.22***		.23***		.27***	

*P<.05 **p<.01 ***p<.001

• β 계수는 모델 4로부터 산출된 것임

이상의 결과들을 연구문제 2의 결과와 함께 고려해본다면 미국 청소년에 비해 한국 청소년의 높은 우울증 수준은 학교 공부 특히 수업중 개별공부에 오랜 시간을 보내고 적극적 여가 활동에 적은 시간을 보내는것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시간사용 유형에 의해 설명되는 우울증 점수의 변량은 적었다(수업중 개별공부:4%, 적극적 여가활동:12%). Model 4에서 볼수있는 바와같이 명명변인인 문

화로 설명되는 우울증 점수의 변량이 다른 독립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보다 컸다. 이는 일상활동에 대한 시간사용 유형이 우울증 수준의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는 변인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연구문제 5에서는 일상생활경험의 주관적인 면, 즉 일상활동중에 경험하는 정서적 상태가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

5.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와 일상생활활동의 정서적 경험

공부와 여가활동의 정서적 경험이 한국과 미국

청소년간의 우울증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인지 알아보기 위해 활동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한국과 미국 고등학교 3년생 집단의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 차이와 일상생활활동 중 정서상태의 관계 평가를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공 부				여 가 활 동					
	수업중 강의듣기		수업중 개별공부		방과후 개별공부		소극적 여가활동		적극적 여가활동	
	R ² 증가	β^1	R ² 증가	β^1	R ² 증가	β^1	R ² 증가	β^1	R ² 증가	β^1
Model 1 성(sex)	.03	.23**	.03	.12	.03	.18	.04*	.17*	.06	.30**
Model 2 시간사용유형	.20***	-.43***	.17***	-.29**	.11***	-.22*	.13***	-.22*	.01	-.08
Model 3 성 x 시간사용 유형	.01	.03	.03	.15	.01	-.08	.01	-.08	.01	-.03
Model 4 문화(culture)	.08***	-.28**	.09***	-.33**	.10***	-.34***	.10***	-.34***	.14***	-.39***
전체 R ²	.34***		.32***		.27***		.27***		.24***	

*P<.05 **P<.01 ***P<.001

• β 계수는 모델 4로부터 산출된 것임.

<표 5>에 의하면 Model에서 우울증 수준에 대한 성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적극적 여가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생활활동의 정서적 상태가 우울증 점수의 변량을 의미있게 설명하는것으로 나타났다(Model 2). Model 3에서 성과 정서상태의 상호작용 변인이 우울증 점수의 변량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으므로 Model 2에서 나타난 정서적 상태의 유의한 효과의 유형은 성에 따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연구문제 3의 결과에서(표 3 참조) 제시한바 우리나라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에 비해 학교 공부를 하는 동안이나 소극적 여가 활동을 하는 동안에 더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미국 청

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청소년의 우울증은 대학입시가 생활의 주 관심사가 되고있는 일상생활에서 공부시간이나 여가시간에 더욱 부정적인 기분을 경험하는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우울증에 대한 비교문화연구들은 문화(culture)를 구성하는 어떠한 요인이 우울증 수준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고자 한다(Marsella, 1987). 일상생활경험은 문화 고유의 생활양식을 나타내주는 문화의 주요 요소임을 고

려해 볼 때(Converse, 1972; Moller, 1992), 일상생활경험과 우울증 수준간의 관계 파악은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위계적 회귀분석 모델은 한국과 미국 청소년이라는 두 집단이 변수가 되는 문화(culture)라는 명명변인으로 설명되는 우울증 점수의 변량을 일상활동에 대한 시간사용유형(time use patterns)이나 정서적 상태 변인으로 얼마나 설명해 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문제 1, 2, 3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에 비해 우울증 수준이 높았고 학교 공부를 하는데 더욱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따라서 훨씬 적은 여가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국 청소년들은 이러한 하루 활동을 통해 더욱 부정적인 정서를 느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에 비해 우울증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일상생활 경험에 의한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연구문제 4, 5의 결과를 통해 이러한 가정을 부분적으로 긍정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미국청소년에 비해 높은 우울증 수준은 일상생활에서 오랜시간을 수업중 개별공부에(우리나라 고 3생의 경우 자율학습에 해당되고 미국 학생의 경우 수업중 교실이나 도서실 등 학교안에서 자습하는 시간을 갖는 활동) 보내고 적극적 여가 활동 시간이 부족한 점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에 비해 우울증 수준이 높은것은 학교 공부를 하는 동안이나 소극적 여가활동 중에(예, TV.보기, 친구와 잡담하기, 게임을 부리기등) 더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것과 관계가 있었다.

이와같이 일상생활경험이 우울증 수준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의미있는 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예를들어 <표 5>에 의하면 일상생활 활동중 정서상태의 우울증 수준에 대한 효과를 통제 한 후에도 문화라는 명명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우울증 수준의 변량이 의미있다(8%-14%). 비교문화 연구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사색의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예를들면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구조, 사회의 응집력, 조상숭배에 대한 관습, 언어구조등이 우울증의 증세나 수준의 문화적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Chang, 1985; Kleinman, 1973; Marsella, 1987; Nikelly, 1988; Sue & Sue, 1987; Tseng & Hsu, 1980). 이러한 추상적인 요소들의 조작적 정의나 측정방법의 개발은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차이를 경험적으로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미리(1995). 고 3 청소년의 일상생활 활동경험과 우울증 수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6(2), 23-36.
- Baron, M. R. & Matsuyama, Y.(1987). Symptoms of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8, 803-816.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3-63.
- Carey, M. P., Lubin, B., Brewer, D.J.(1992). Measuring dysphoric mood in pre adolescents and adolescents: The

- Youth Depression Adjective Check List(Y-DACL).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331-338.
- Chang, W. C.(1985). A cross-cultural study of depressive symptomology. *Culture, Medicine and Psychiatry*, 9, 295-317.
- Cho, H. J.(1993). Children in the examination war in south Korea(I). Unpublished manuscript.
- Converse, P. E.(1972). Country differences in time use. In Szalai(Ed.). *The use of time*(pp.145-178). Hague:Mouton.
- Csikszentmihalyi, M. & Larson, R.(1984). *Being adolescent*. NY:Basic Books.
- deVries, M. W.(1992). *The experience of psychopathology*.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ener, E. Suh, E. M., Smith, H., & Shao, L.(1994). National differences in reported subjective well-being: Why do they occur? *Social Indicators Research*, in press.
- Feldman, S. S. & Rosenthal, D. A.(1991). Age expectation of behavioral autonomy in Hong-Kong, Australian and American youth: The influence of family variables and adolescent's valu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6, 1-23.
- Feldman, S. S., Rosenthal, D. A., Mont-Reynaud, R., Leung, W., & Lau, S. (1991). Ain't misbehaving: Adolescent values and family environments as correlates of misconduct in Australia, Hong-Kong,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 109-134.
- Fugita, S. S. & Crittenden, K. S.(1990). Toward culture and population specific norms for self-reported depressive symptomolog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6, 83-92.
- Harrington, R., Fudge, H., Rutter, M., Pickles, H., & Hill, J.(1990). Adult outcome of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psychiatric statu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7, 1112-1117.
- Hops, H., Lewinsohn, P., Andrews, J., & Roberts, R.(1990). Psychological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211-220.
- Hymes, R. W. & Akiyama, M. M.(1990). Depression and self-enhancing among Japanese and American studen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 321-334.
- Kandel, D. B., Raveis, V. H., & Davies, M. (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89-309.
- Kleinman, A.(1986). *Social origins of distress and disease: Depression, Nuerasthenia, and pain in modern China*. New Haven:Yale University Press.
- Kovacs, M.(1985). The children's depression

- inventory. *Psychopharmacology Bulletin*, 21, 995-998.
- Kuo, W. H.(1984). Prevalence of depression among Aisan-American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2, 449-457.
- Larson, R.(1989). Beeping children and adolescents:A method for studying time use and daily experi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511-530.
- Larson, R. Ham, M., Richards, M., Ham, M., & Jewell, L.(1990). Ecology of depression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A profile of daily states and activit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92-102.
- Lee, M.(1994). Cultural differences in the daily manifestation of adolescent depression:A comparative study of American and Korean high school seniors. Ph. D. dissertation submitted to college of Human Resources and Family Studies,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Marsella, A. J.(1987). The measurement of depressive experience and disorder across cultures. In A. J. Marsella, R. M. A. Hirschfeld, & M. M. Katz (Eds.), *The measurement of depression*(pp.376-397). NY:The Guilford press.
- Marsella, A. J., Kinzie, D., & Gordon, P. (1973). Ethnic variations in the expression of depress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 435-458.
- Merrick, W. A.(1992). Dysphoric moods in depressed and non - depressed adolescents. In M. W. deVries(Ed.), *The experience of psychopathology*(pp. 148-156).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ller, V.(1992). Spare time use and perceived well-being among black south African youth. *Social Indicators Research*, 26, 309-351.
- Nikelly, A. G.(1988). Does DSM-III-R Diagnose depression in non-Western patie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34, 316-320.
- Nolen-Hoeksema, S. & girgus, J. S.(1994).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 424-443.
- Petersen, A. C., Compas, B. E., Brooks-Gunn, J., Stemmler, M., Ey, S., & Grant, K. E.(1993). Depression in adolescence. *American Psychologist*, 48, 155-168.
- Poortinga, Y. H. & Van De Vijver, F. J. R. (1987). Explaining cross-cultural differences:bias analysis and beyon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8, 259-282.
- Radloff, L. S.(1977). The CES-D scale: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hlen, T. R.(1983). *Japan's high schools*. Berkel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utter, M.(1991). AGE changes in depressive disorders:some developmental consideration. In J. Garber & K. A. Dodge(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pp.273-300)*.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oolland, K.(1990). *Shogun's ghost:The dark side of Japanese education*. NY: Bergin & Garvey.
- Sue, D. & Sue, S.(1987). Cultural factors in the clinical assessment of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479-487.
- Sung, H., Lubin, B., & Yi, J.(199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Youth Depression Adjective Check List(Y-DACL). *Adolescence*, 27, 527-533.
- Tseng, W. & Hsu, J.(1980). Minor psychological disturbance of everyday life. In H. Triandis & J. Draguns(1980). *Handbook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Psychopathology(pp.61-97)*. Vol. 6. Boston:Allyn & Bacon, Inc.
- Zung, W. W. K.(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 63-70.